

꾹 기르기



이 응 / 축산시험장 가금과

〈지난호에 이어 계속〉

6. 육추 및 사양관리

(1) 육추

육추는 부화후부터 30일령까지의 꾹병아리가 외기의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르는 과정을 말하며 자연육추와 인공육추로 구분된다.

① 자연육추

가모닭에 의한 부화 및 인공부화한 꾹병아리를 가모닭에 의해 육추하는 것으로 간편한 방법이지만 인공육추보다 비효율적이며 순치개량이 낮고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 육추 형태이다.

② 가모의 선택요령

여러종류의 암탉이 있지만 그중에서 재래닭, 나고야, 자보 등과 같이 취소성이 강한 품종의 닭을 선택하는데 다음 사항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2~3년생으로 육추 경험이 있고 몸 특히 복부(배)부분에 부드러운 깃털이 많고, 성질이 온순하며 취소를 중단하지 않고, 질병 및 외부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하고 체구가 큰 닭이 적합하다.

③ 가모 육추기

가모닭에 맡기는 꾹병아리수는 대개 20수정도 내외가 적당하다. 육추기는 가모를 수용하는 장소와 꾹병아리만이 운동하는 운동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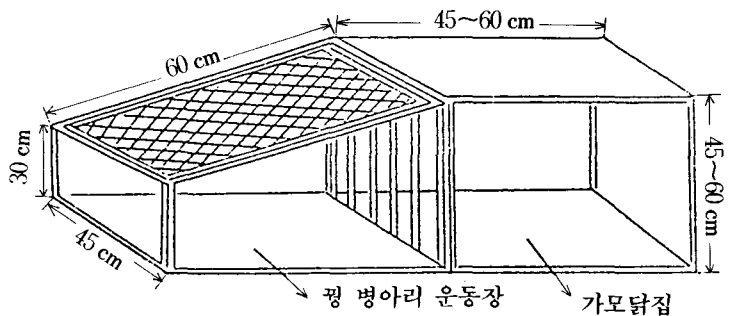
로 구별되어야 한다.

㉠ 사양관리

가모닭을 먼저 육추장으로 옮긴 다음 꾹병아리를 조심스럽게 옮겨 준다 또 가모닭을 포식시킨후 꾹병아리 사료를 급여하고 육추완료는 부화후 30~40일경에 상태에 따라 가모로부터 분리시켜 준다.

④ 인공육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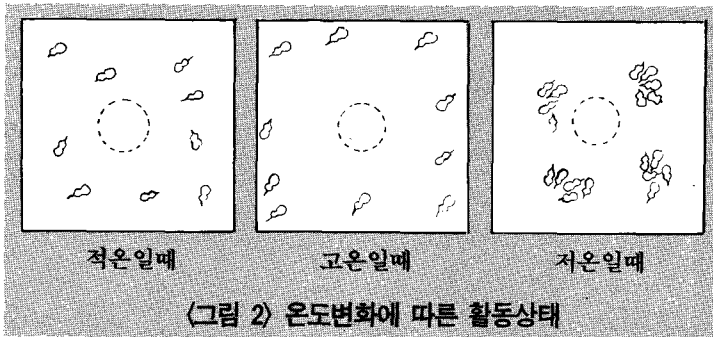
인공육추는 온·습도, 사료 및 환기에 각별히 주의하면 자연육추



〈그림 1〉 가모 육추기

표 1. 육추주령별 온도관리(°C)

기간 \ 사육수	0~3일	4~7일	2주령	3주령	4주령	5주령	6주령
50수이하	37	36	34	31~28	25~20	—	—
100~300수	36	36	34	31	29~25	25~20	—
500~1,000	36	36	34	31	28	25	24~20



보다 효율적이며 순치개량이 빠르다.

㉠ 보온

평병아리는 일정한 높은 온도에서 발육 및 사료의 소화흡수가 용이하나 저온에서는 발육장애 및 소화불량에서 비롯된 식체(소낭염)를 초래하여 폐사되기 쉬우므로 입추 당시는 부화온도에서 약 -2.7°C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 간격으로 -2.7°C씩 낮추어 주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온도를 조절하여 주는데 <표 1>과 같다.

○ 적온일 때; 동작이 활발하고 적당히 흩어져 자연스럽게 잔다.

○ 저온일 때; 열원부에 바짝 붙어 서로 밀어서 들어가려 다룬다.

○ 고온일 때; 공기유동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고 두 날개를 쳐들

고, 입을 벌려 헐떡거리며 호흡한다. 따라서 적정온도는 육추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상태<그림 2>를 잘 관찰해야 한다.

㉡ 환기 및 습도

환기불량 및 습도의 과부족은

만성호흡기 질병으로 성장에 큰 지장을 주므로 찬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하고 습도관리<표 2> 또한 중요하다.

표 2. 육추기간 습도관리

기 간	습 도
부화후 3일령까지	70(%)
4~6 일령	65~60
7일령 이후	55~50

㉢ 육추기

육추기는 상자식, 입체식, 샷샷식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자식 육추기로서 근래에 와서 전기와 가스로 대부분 육추가 이루어지므로 간이 상자식 육추기의 크기에 따른 사육수 및 육추율, 가스와 간이육추기가격을 비교하면<표 3>, <표 4>,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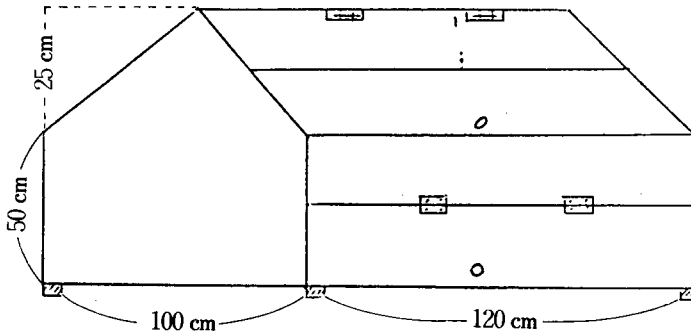
위와 같이 볼때 육추율에서 간이육추시 가스육추시 보다 -2.

표 3. 간이 상자식 육추기의 크기와 사육수

육추기의 크기			사육수수		
길이	넓이	높이	1주령	2주령	3주령
cm	cm	cm	수	수	수
100	60	30	30	25	12
200	100	30	100	75	35
300	300	30	300	150	150

표 4. 가스육추와 간이육추시 육추율 비교

구 분	육추계시월일	육추종료월일	생존수	폐사수	육추율	비고
가스육추	4.16~7.28	6.25~8.29	1,696	150	91.8(%)	
전기육추차	5.9~7.13	6.10~7.28	2,177	267	89.1(%)	△2.7



〈그림 3〉 간이 상자식 육추기 모형(100수용)

표 5. 육추기 가격비교

구분	가 격	1회이용수수	비 고
가스육추시	150,000(원)	500~700(수)	* 전기육추시
간이육추시	52,780	150~200	전기히타이용 : 51,800(원),
차	97,220		전구이용 : 44,000
			열판이용 : 62,550

* 간이육추기 3가지 유형을 합하여 나눈 가격이 52,780원임

7% 낮았으나, 광열비를 비교하여 보면 97,220원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전기육추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보통 간이 육추기는 〈그림 3〉과 같다.

㉒ 육추사

육추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적은 수의 평병아리를 육추시는 별도의 육추사가 필요치 않고 빈방이나 창고에 육추기를 넣어서 사육해도 되나 많은 마리수를 육추할 때는 관리의 노동력 절감 및 위생관리상 유리할 뿐이다.

㉓ 육추사의 설치장소 및 조건

○ 방향은 정남, 동남동, 남동

향이 좋으며 벽은 외기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바닥은 견고해서 쥐나 기타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물빠짐이 좋고 건조하며 햇빛이 잘들어 오는 곳이어야 한다.

○ 사람들의 잦은 왕래와 소음이 없고 관리자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전기나 물 이용이 용이한 곳이 좋다.

㉔ 육추사의 구조

○ 청소 및 방역(예방접종포함)이 용이할 것.

○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

○ 건축비가 적게 들면서 견고할 것.

③ 육추사료

㉑ 초생추

초생추 사료급여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발생후 3시간이내)에 급여하여야 하며 이때 수송스트레스 및 항병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항생제나 영양제를 물에 혼합하여 급여하는데 항병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항생제는 보통 물 1,000 cc

표 6. 초생추 사료 배합요령

일 령	사료 배합 요령	급여회수
1일령계	삶은계란 노른자와 항생제 또는 영양제 섞인 물	섭취량에 따라
2~3일령	삶은계란 노른자 50%, 삶은좁쌀 40%, 청채 10%	1일5회
4일령	삶은계란 노른자 50%, 삶은좁쌀 20%, 청채 10% 초생추 배합사료 20%	1일4회
5일령	삶은계란, 삶은좁쌀 30%, 청채 10%, 초생추 배합사료 50%	1일4회
6~7일령	초생추 사료로 대체하고 청채를 잘게 썰어서 충분히 준다.	1일4회

: 항생제 20~30g 즉 3~5%수준으로 급여해준다.

사료는 부화후 2~3일간은 물에 개어서 급여하는데 이때 물의 양은 손으로 짤때 손가락 사이로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2시간 간격으로 먹는 양을 보면서 조절해준다.

4일째부터는 급이기를 사용하여 녹사료를 잘게 썰어서 하루에 2~3회 주는데, 최소한 하루에 1회정도 반드시 급여하고 부화후 8일간은 폐사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온·습도, 물 사료급여에 주의해야 펴사육의 성패가 좌우된다.

또한 거의 행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 초생추사료를 7일령까지 배합하여 급여하는데 배합요령은 <표 6>과 같다.

8일령부터 초생 추배합사료를 무제한 급여하고 녹사료는 평병아리의 영양관리상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수시로 급여하면 좋다.

④ 음수관리

음수관리는 1일령부터 15일령까지는 8시간 간격으로 물을 갈아주어 변패된 물을 먹지 않도록 유의하고 1~3일령까지는 소형급수기나 메추리용 급수기를 이용하면 좋다.

16일령 이후부터는 1일 2회 물을 갈아주다 40일령 이후부터는 1일1회 물통의 찌꺼기만 제거하여 준다.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고 사료가 변질되기 쉬우므로 변질된 사료를 방치해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 사료

중병아리(또는 육계후기) 사료를 무한 급여하는데 이때 사료통수는 100마리에 2~3개 정도로 혼합해서 사료먹을 때 뒤로 쳐지는 펴이 없도록 사료통수를 잘 감안하여 배치하여 주는 것이 좋다.

② 급수

가능한 자연수가 좋으며 자동 급수기를 이용하여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고 영양제나 항생제를 타서 주면 질병예방에 좋다.

(2) 중평 사양관리

이 기간(6주령 폐온시~14주령)은 외기의 온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육추사에서 일반사육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이다.

또한 안경을 착용하는 시기(발생후 45~60일)로 여름철에 해당하므로 더위와 장마로 인한 폐사가 많은 시기로 비를 30분 이상 맞을 경우 체온이 떨어지므로 침실로 몰아 넣어야 한다.

③ 녹사료

녹사료는 배추, 무우청, 아카시아잎, 고구마덩굴, 수박, 호박, 알팔파 등과 같은 종류의 녹사료를 주면 좋다.

표 7. 평과 육계의 영양소 요구량 비교

영양소	평			육 계		
	육추기 (0~5주령)	성장기 (6~14주령)	산란기 (15~)	전기 (0~3주령)	중기 (3~6주령)	후기 (6~8주령)
대사에너지 Kcal/kg	2.800	2.700	2.800	3.200	3.200	3.200
단백질 %	30.0	16.0	18.0	23.0	20.0	18.0
클리신+세린 %	1.8	1.0	-	1.50	1.00	0.70
라이신 %	1.5	0.8	-	1.20	1.00	0.85
메치오닌+시스틴 %	1.1	0.6	0.6	0.93	0.72	0.60
리놀린산 %	1.0	1.0	1.0	1.00	1.00	1.00
칼슘 %	1.0	0.7	2.5	1.00	0.90	0.80
유효인 %	0.55	0.45	0.40	0.45	0.40	0.35
나트륨 %	0.15	0.15	0.15	0.15	0.15	0.15
염소 %	0.11	0.11	0.11	0.15	0.15	0.15
옥도 mg	0.30	0.30	0.30	0.35	0.35	0.35
리보플라빈 mg	3.50	3.00	-	3.60	3.60	3.60
판토텐산 mg	10.0	10.0	-	10.0	10.0	10.0
리아신 mg	60.0	40.0	-	27.0	27.0	11.0
콜린 mg	1.500	1.000	-	1.300	850	500

(3) 큰쟁 사양관리

이 기간(15주령~)은 큰쟁으로 그 아름다움이나 기품을 모두 갖추고 있는 시기로 사료는 단백질이 적게 함유되고 가격이 저렴한 사료(육계후기 또는 대추사료)를 급여하는데 이때부터 사료섭취량은 급격히 증가하나 폐사율은 낮다.

그러나 사육장내에서 부딪쳐 죽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육장을 설계할 때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고 수컷이나 육용으로 출할 핏은 출하계획을 미리 세워서 출하하는 시기이다.

(4) 핏 전용 사료급여

사료급여 체계는 육추기, 육성기, 산란기 모두 육계용 사료를 먹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핏과 육계의 영양소 요구량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같이 핏이 육계보다 육추기때 단백질 요구량이 더 높고, 중쟁이나 산란기(성핑)때 단백질 수준이 낮아 육계사료로 급여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

반면 육추기때는 단백질 수준이 낮은 육계사료나 산란사료를 급여하여 생존율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크다.

(다음호에 계속)

부화기 개발에 앞서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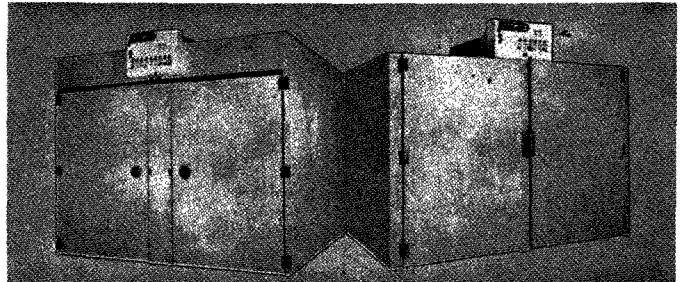
대 성 부 화 기

핑 기르고 알 낳고 부화시키면 —

핑분양에서 부터 또 분양에까지 필요한 것은 부화기입니다.

- 대성부화기는 축적된 기술과 값진 경험으로 온도·습도·환기 등의 임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대성부화기는 전자동·수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문 사육자나 초보자도 쉽게 운용하여 높은 부화율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가스육추기 사용시 「산소의 태움」으로 발생하는 「산소결핍증」의 단점을 보완한 강원도 철원식 육추기 절찬리 공급중!!



◎ 대성부화기

- 용량 : 5,000~10,000수(핑 기준)
- 용도 : 닭·오리·오골계·뜸부기 등 조류

◎ 핏분양 상담

- 부화 • 분양 • 사육
- 식육용 • 관상용

대 성 부 화 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253-1
전화 : (0342) 753-3871
지택 : (02) 865-7785